

구례군, 친환경 법씨 온탕소독 지원

자동온탕소독기 읍·면농업인상담소 8개소에 설치 친환경 법씨 온탕소독으로 병해충 사전예방 총력



구례군은 법씨 종자로 전염하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 친환경농업단지 확대를 위해 법씨 자동온탕소독기 읍·면농업인상담소 8개소에 설치하여 본격적인 법씨 소독지원에 나선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친환경농업단지 및 일반단지에 법씨소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4월 7일부터 2,100ha 면적에 63톤의 종자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된 종자를 5kg씩 나눠 담아 60℃의 물에 10분간 담근 후 다시 꺼내어 찬물에 충분히 종자를 식힌 후, 침종과 최야의 과정을 거쳐 육묘를 하던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버일선충 등 각종 종자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군 관계자는 “법씨 온탕소독 현장지원을 통해 병해충의 밀도를 경감시켜 고품질 쌀 생산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법씨 소독에 드는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플랫폼 사용 교육 구매 담당 공무원 등 35명 대상...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도움 기대

담양군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플랫폼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공공구매 담당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교육 내용을 ▲사회적경제의 이해 ▲공공기관 ESG 경영의 필요성 ▲공공구매의 필요성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사용법 교육 및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은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창출 및 제품 구매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공공구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가족센터,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운영

“교육 자료 어떻게 활용하는지 좋은 방법 알게 돼 자신감 생겨”

곡성군가족센터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문화 강사 5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9회기에 걸쳐 다문화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강사로서의 기초 소양, 다문화 이해교육 이론, 교구와 및 학습 자료 활용법, PPT 제작 실습 등 학생들을 지도할 때 유용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교육에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5명의 다문화 강사가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다문화 강사 A씨

는 “한국어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재밌으면서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때가 많았다. 이번에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교육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좋은 방법들을 알게 돼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곡성군가족센터는 2009년부터 다문화 이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원하는 기관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150회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다문화 이해교육의 효과성을 높



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0년부터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수혜 기관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군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임산물 불법 채취·농부산물 소각·쓰레기 투척 행위 등 집중 단속

화순군이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산불진화대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 연접지 내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행위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

위도 함께 단속한다.

군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 직원 공직감찰' 실시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 5월 31일까지 자체감찰반 운영

나주시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자체감찰반을 편성해 5월 31일까지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주요 감찰 대상 행위는 '선거캠프 직·간접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등 선거 관여 행위, 'SNS상 선거 관련 게시물 작성·공유', '좋아요'와 같은 지지의사 표명 등 SNS활동 위반사항, '금품·향응 수수, 복무규정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사항 등이다.

한편 시는 강인규 시장이 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6월 1일(24시)까지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선거기간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적발 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나주 남평읍, 새봄맞이 지식천 감나무공원 식목 행사

나주시 남평읍은 지식천 감나무공원에서 기관·사회단체와 새봄맞이 산불 예방 및 탄소저감 식목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식목행사는 클린 남평 만들기 일환으로 관내 15개 단체회원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원 산책로에 황태화 등 700주를 식재했다.

신병철 남평읍장은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평읍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준 단체, 주민들의 값진 구슬땀에 감사드린다”며 “쾌적



한 주민 휴식 공간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